

● 연구 발표 내용

(제18회 대한 가정 학회 총회 주제 강연)

70 年代의 家政學方向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학장 장 명 옥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 發展은 社會의 여러면 을 변화시키고 있다. 즉 職業의 分業化 人口의 都市集中 集團住宅 아파아트 생활 擴大家族에서 核家族으로서의 구성의 변화 企業의 投資問題를 둘러싼 外國으로부터의 차관문제와 국민저축문제 등등, 70년대에 와서의 우리의 생활은 근대화를 향함과 동시에 여러 모로 눈을 올바르게 뜨고 노력해야 할 일이 많다. 따라서 가정학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研究姿勢로써 건전한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아 갈 수 있는 人間育成을 위한 社會科學的인 면과 物資의 능률적인 活用을 위한 自然科學的인 면 등 여러 면으로 연구하고 活躍해야 할 때라고 본다. 다음에 앞으로의 가정학의 목적, 그 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家政學의 교육 목적은 「가족의 행복과 人類의 福祉」를 위한 것이며, 「人間發達과 資源活用」의 兩面으로 추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家政學의 領域은 自然科學면만도 아니고 社會科學, 人文科學, 技術, 藝能까지도 포함하는 綜合的이면서 家政學으로서의 獨自的인 領域인 것이다.

따라서 衣·食·住生活 家庭管理 家政經濟, 家族關係, 兒童發達, 團體給食管理, 家庭生活 啓蒙指導 등 여러 分野로, 細分되나, 이것들 모두가 어떤 다른 分野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特殊分野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說明한다면 衣服材料에서는 衣服材料的 科學的인 處理方法과 衣生活과의 適應與否 및 衣服構成과의 關係, 被服構成學에서는 人體의 靜的體型的 把握과 成長에 따른 體型的 變化에 關한 法則性을 찾아냄과 同時에 一步 더 나아가 生物로서의 衣服 즉 生理衛生學的 環境衛生學的 見地에서 實驗을 通하여 衣服構成에 임하는 것이다. 즉, ①體型 및 衣服原型등의 形態學的 諸問題, ②構造上으로서 옷과 感覺과 關係되는 衛生學的 諸問題 ③織物의 曲面化 및 接合法에 關한 諸問題 등 衣服構成의 基礎的인 研究가 主 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關하여서 美國에서는 이미 활발히 研究가 되어 既成服 企業化에 많이 貢獻을 하고 있고 隣接國인 日本에서는 半官 半民의 被服構成 研究委員會가 設置되어 基礎研究로서 많은 家政學者가 動員되어 現在 猛烈히 研究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研究資料로서 오차노미즈女子大學(國立) 家政學部에서는 東京大學 生産技術研究所와 제휴하여 컴퓨터에 의한 自動製圖·裁斷에 關한 開發的인 研究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의부구성학에 있어서의 궁극의 연구성 과는 生産과 直接 連結되는 것이고 또한, 消費方法 合理化 立場에서는 용도에 맞는 옷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그의 취급법, 향상된 재봉법 등을 고등학교, 성인단체, 매스콤 등을 통하여 제몽시켜야 하므로 의류학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方向은 소비 합리화를 위한 생산면의 技術제공과 한 가정의 合理的인 衣生活設計 및 管理를 연구 지도제몽 등의 多方面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생화학 미생물학 등을 기초로하는 식품 영양분야에서는 가정 생활에 관한 영양관리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관한 문제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大企業으로 전환해 가는 이때 급식·영양관리에 더욱 력점을 두어 공헌해야 한다.

큰 集團의 給食營養管理는 行政·運營人事管理人만으로는 不可能하며 여기에 調理學 營養學에 有能한 사람이 있어야 正常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家政學에 있어서의 目標로 한 調理學이란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데의 技術指導보다 調理原理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다. 調理技術은 多年間의 經驗으로 노련해질 수 있으나, 原理를 모르고 習得된 조리기술은 發展·應用·適應性도 기대할 수 없으며, 食生活改善 云云하여도 科學的 根據가 없는 구상은 營養價損失도 究明할 수 없는 實効가 적은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安全한 食品저장과 가공은 調理原理에 關한 충분한 지식에 依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저장 식품을 위한 調味料의 配合 風味 및 일반 국민의 嗜好 등은 化學 微生物學的인 지식과 食品分析 등의 化學者만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加工食品이 많이 쓰여지게 될 年대를 위하여 이 70방면의 연구에 더욱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이르기 위해서는 영양학 식품학과 더불어, 식품분석, 감별법, 조리원리, 조리과학 등은 물론이고, 식품 저장·가공에 필요한 모든 科目을 履修하여 食品加工業界에 많은 공헌을 하도록 해야한다. 現在 우리나라에도 加工食品 들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의 것을 모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이상한 맛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분야의 전공자들은 국민 영양 향상을 위한 계몽교육 담당의에 생산공장의 연구기관 기술자로 단체 급식 운영의 관리자, 병원 영양사, 研究機關의 연구원, 學者, 교사, 매스콤을 통한 생활 개선 제몽 등등 다방면으로 공헌해야 하므로 가정학에서는 이러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家政經濟에 있어서도 일단 收入이 된 그 범위에서의 消費方法을 어떻게 절제있게 소비하는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가정 向上을 위하여 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가정생활方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즉 ①家事 勞動의 經濟的 評價, ②効用의 測定, ③勞動力再生産, ④生活의 再生産을 포함한 經濟循環, ⑤標準生活費 및 最低生活費의 規定 및 測定, ⑥物價變動과 家計構造의 變動 들이다. 이 밖에 家政經濟에서 또 밝혀야 할 것은 家庭生活 現狀分析 問題이다. 이와같이 가정학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가정경제분야는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넓게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하여 가정과 더불어 우리 나라가 융성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생활

향상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家政管理問題에서도, 집안의 管理문제뿐만이 아니다. 住宅의 設計, 장치, 가구, 가족관계, 아동 育成問題 등을 현 社會思潮 家族構成의 變遷에서 오는 문제들에 비추어 適合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즉 産業發展으로 인한 大企業은 거기에서 從事하는 사람들을 모두 分業的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리함으로써 從業員들은 職場內에서 各階層의 사람과 全人的인 接觸이 없고 직업적이고 部分的인 접촉이 되기 쉬우며, 여기서 오는 교양과 정서의 결핍 변화 없는 작업에서 오는 권태감 등을 가정생활 내에서의 人間關係, 家族關係 등의 管理에 一層 더 心慮를 기우려야 하며 또한 家族間의 心理 연구에 노력해야 하겠다고 본다. 또한 社會의 변화는 擴大家族에서 핵 가족으로 변해가므로서 담쳐오는 人間 育成上의 차이 즉 사회성과 그밖의 여러 면의 長短點 등 가정생활의 사회과학적인 면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産業 부흥에 따르는 日用物資의 豊富한 出廻는 사람들에게 意志決定을 混亂시키기 쉽게 되고 商業競爭에서 오는 商品宣傳術의 發達로 인한 상품 감식 困難등은 物資選擇 소비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면에 비추어 생각할 때, 가정관리자들에게 건전한 生活理念 樹立을 위한 교양과 科學的인 生活方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관리학이어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가정관리학과에서는 人間育成, 兒童發達, 家族心理에서 또는 보건 상으로 본 住宅 設計 家事能率 면에서의 주택의 설비와 가구 기구 등의 구조와 디자인 등 消費物資의 製作에 있어서 消費者의 必要를 適確하게 把握하여 소비물자 製作開發에 공헌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70년대의 家政學徒들의 任務는 家庭生活에서의 消費의 合理化 自信的 健全한 生活理念 樹立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의 생활 계몽 지도의 역할과 가정생활 근대화를 일층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日用物資 生産工場에 과학적이고 全人間的인 면을 포함한 기술을 提供하는 데까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에 있어서의 가정학 교육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교수 이 혜 수

발전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가정학 교육은 발달하는 사회 파악 가정의 파악을 하고 바람직한 가정 건설에 목표를 두고 대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외국의 가정학의 발달은 그 발달이 여러면에서 시작 되었으나 처음에는 여자가 가정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 문화 발달로 전문적인 연구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것이 지나쳐서 인간 관계가 편협해 지게 되어 인간 관계에 있어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교육의 중점을 두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가정학 교육은 이제 기본적인 기술 습득의

시대를 지나서 전문적인 연구의 초기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다. 의생활에 있어 직물의 대량 판매 기성복등이 발달되고 있지만 기성복은 잘 맞지 않고 문제점이 많으므로 아직도 의생활 부문은 이 부분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나라 식생활 문제에 있어서도 요식업의 단체식 조리업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외국의 가공 식품처럼 발달이 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가공 식품 부문에도 대학의 식생활과가 담당해야 한다. 주생활에 있어서도 산업 발달로 인해 여러 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여러 면의 모순과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기구 가구등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하며, 가정 경영 문제에 있어 능률적이고 행복한 가정 관리에서 사회단체의 경영 관리면 까지 연구해야 된다. 대학의 가정학 교육은 1. 각 전공을 철저히 연구 하면서도 인간 관계의 면에 치중해야 하고 원만한 가정학 교육자로써 빈틈이 없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2. 기술에만 그치지 말고 거기에 뒤따르는 원리 원칙을 가르치고 이것을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켜야 한다. 3. 과학적인 이론 과목은 이론 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 이론을 일상생활에 적용 응용시킬수 있는 과목까지도 교과 과정에 넣어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 .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

진명여중고 교사 김 필 순

중고등 학교의 가정과 교육은 곧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르는 책임이 크다고 볼수 있다. 당면한 중고등 학교 가정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1. 가정과 교육 과정에 있어 중학교 교과 과정의 여러 군데 (섬유별 분류)에 큰 미스가 발견되고 있다. 학문의 계열이 도무지 성립되어 있지 않다, (예를들어 中 1, 中 2의 계열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과 가정의 유기적 연관성의 결여 개정된 가정과 교육과정에 있어 가족 관계 가정 위생, 여성 생리등이 취급되고 있지 않다. 여성의 순결문제 무지에서 오는 여성 불행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

2. 새로 마련된 기술과 교육

교육 내용의 목적과 방법은 사회 발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산업 발달로 인해 기본적인 기술의 발달이 요청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술 교육을 따로 들 것이 아니라 가정 교육에 합쳐서 확대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단지 조리 기술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기술 조리 보다는 가정의 조리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가정과 가정속에 기술과 교육을 넣어서 가르쳐야 한다. 기술과 교육을 가정과 교육속에 넣지 못한다면 그 유기적인 연관 만이라도 생각해서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3. guide(지침서)의 필요성

가정과 학습 내용이 너무나 빠른 사회 발달로 인하여 뒤 늦게 처질 염려가 있다. 가정과 교사는 지도 참고서의 부족 생활 경험 기술의 부족을 60% 이상이나 인정하고 있다. 참고서의 부족자료의 빠른 시일 안의 채취가 부족하며 중등학교 가정과 부문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널려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닌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옛처럼 한 가정의 주부 딸만으로 그칠게 아니라 이제는 한 사회인으로써 여성의 역할을 가르쳐야 한다.

가정과 교육과 가정생활

숙명 여자 대학교 가정대학 교수 주 정 일

가정과 교육은 가정 생활의 행복,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장래에 가정을 가질 여자를 위해 교육 해왔으나 이제 가정은 여자의 것만은 아니다. 핵가족제도에 있어, 주인은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 여자 둘다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미혼 기혼 노인까지, 가정에 적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가정과 교육이 필요하다.

남성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이르렀으며, 가정과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문교부 교육 교과 과정 정책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